

‘중환배 우승’ 이창호 GS배는 다음 기회에 온소진에 저 도전권 무산

최근 세계대회인 중환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9단이 국내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 9단은 지난 2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리그에서 온소진 4단계에 211수 만에 흑백계승, 도전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 9단의 현재 성적은 2전전패. GS칼텍스배 최다우승자인 이창호 9단은 리그 초반 박영훈 9단계에 1패를 당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다. 1승 1패의 상황에서 나머지 대국을 모두 쓸어담을 경우 박 9단의 행마에 따라 동률재대국도 노려볼 수 있었으나 2연패함으로써 차기 대회 본선 시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승리한 온소진 4단은 2승 4패를 거두며 마지막 대국을 남겨놓고 있다. 그는 초반 4연패를 당했지만 최철한 9단과 이창호 9단을 잇따라 잡아내면서 막판 순위 변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날 동시에 벌어진 최명훈 9단과 최철한 9단의 대국에선 최철한 9단이 120수 만에 백불계승을 거두고 리그 3승 3패를 기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명인전 결승티켓 ‘오리무중’

국내 최대 기전인 강원랜드배 명인전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패권을 다룰 대권 후보들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 기사 10명이 출전해 리그전으로 순위를 가리는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 참가자들이 6~9국을 소화한 23일 현재까지도 1, 2위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혼전양상이지만 강력한 1위 후보는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세돌 9단. 그러나 이 9단이 남은 3판을 모두 내줄 경우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 2판을 이겨야 1위가 안정권이지만, 상대 기사들이 모두 ‘한 방’이 있는 이영규, 김지석, 배준희 등 만만치않은 상대들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질 경우 이 9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최근 기세로 볼 때 결승 진출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위 그룹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이다. 목진석 9단(6승 3패), 김승준 9단(5승 3패), 조한승 9단, 김지석 4단, 박정상 9단(이상 4승 3패) 등 고교만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5명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들이 막판까지 물고물리는 접전을 펼칠 경우 최종 성적 6승 3패를 기록한 선수끼리 2위 자리를 놓고 동률 재대국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이영규 6단(3승 3패)도 현재 3판을 남겨두고 있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장 먼저 9판의 대국을 소화한 목진석은 ‘연유 반 긴장 반’의 심정으로 남은 대국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대국에서 값진 1승을 건진 덕분에 6승 3패를 기록, 동률재대국을 확보하고 남은 대국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입장이 됐다.



목진석 9단(오른쪽)이 지난 2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김기용 3단과 대국하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전승자 없이 이세돌만 홀로 1패...불안한 선두 목진석·박정상·조한승 등 5명 2위권 ‘대혼전’

리그 초반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조한승 9단 등 강력한 우승후보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던 그는 연패를 당하면서 본선 직행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이날 대국에서 김기용 3단을 239수 만에 백 2집 반승으로 누르고 1승을 추가함에 따라 본선 진출 희망을 살려냈다. 1억원의 우승상금으로 국내 1위 기전인 강원랜드배 명인전은 강원랜드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바둑TV가 주최, 한국기원이 주관한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에 60초 초읽기 3회이다. 리그 1, 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을 가리며 3위까지 다음대회 본선 시드를 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준상, 신예프로 10결전 선두로

이재용 꺾고 3연승 달려

윤준상 6단이 최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전 B조 리그에서 이재용 5단을 132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리그 3승 1패를 기록했다. 윤 6단은 리그 첫 대국에서 배준희 2단계에 패했지만 이후 3연승을 거둬서 김수용 2단, 배준희 2단과 3승 1패로 동률 선두로 나섰다. B조 리그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들은 각각 1대국 씩을 남겨두고 있다. 윤준상 6단과 김수용 2단은 모두 주형욱 4단과의 대국을 남겨두고 있으며, 배준희 2단은 김수진 2단과 대국을 앞두고 있다. A조에서는 3승 1패를 기록한 박승화 3단과 선두를 달리고 있다.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전은 만25



세 이하, 5단 이하의 기사들만 참가한다. 제한시간은 각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리그 1위를 차지한 두 기사가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가리며 동 순위 기사들끼리 순위결정전을 통해 순위를 가린다. 대국료를 포함한 1위 상금은 1천만원

“묵은 장맛 보여주마”

中 마사오춘, 삼성화재배 와일드카드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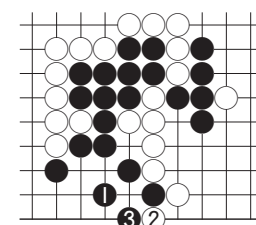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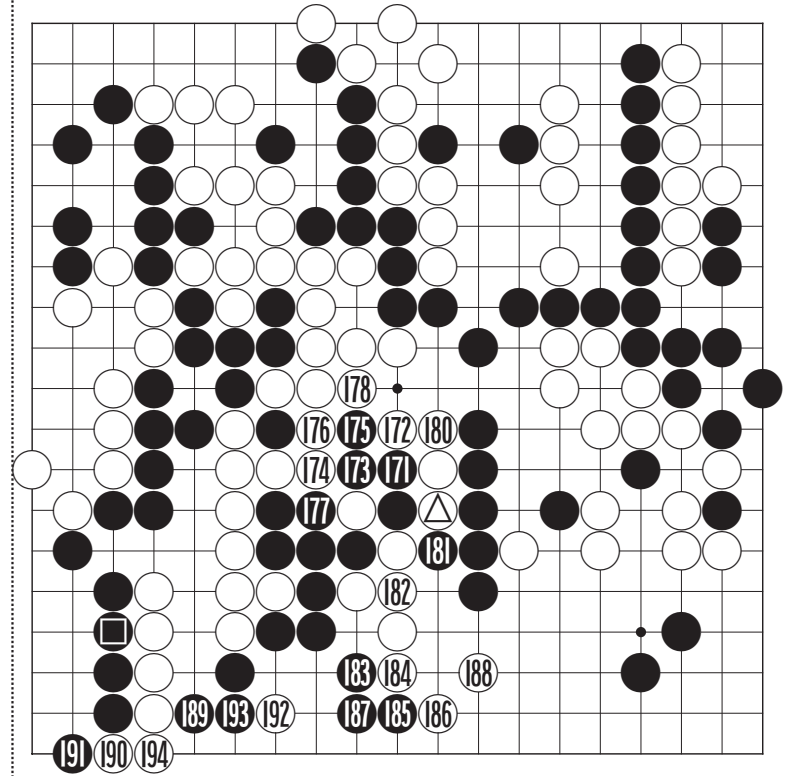
감독이 아닌 ‘선수’ 마사오춘(馬曉春·43) 9단을 삼성화재배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배에서 이창호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바둑인생의 내리막을 걸었던 마사오춘 9단이 주최측 와일드카드를 확보,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본선에 출전한다. 마사오춘 9단은 한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대표선수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감독, 마사오춘 9단에게 삼성화재배는 ‘아름’이다. 그는 바둑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95~97년 삼성화재배에서 ‘거물’ 이창호 9단을 만나면서 사실상 전성기를 마감했다. 제10회 삼성화재배에서 중국의 당시 승승장구하던 마사오춘 9단은 97년 제2회 대회 준결승에서 이창호 9단에게 쓰라린 반집패를 당한 것을 비웃 이듬해 결승전에서 3-2, 역전패를 당했다. 씩씩하게 전성기를 마감한 마사오춘 9단은 “만약 그 때 이창호의 최대장기인 끝내기에서 그를 꺾었다면, 내 전성기는 계속됐을 것이다”라는 회화에 찬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그는 4, 5, 7, 8회 대회 불참을 선언을 하는 등 독특한 행마를 보였다. 그러던 마사오춘 9단은 2005년 8월 1일자로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삼성화재배에 맞는 한을 풀게 된다. 제10회 삼성화재배에서 중국의



뤄시허 9단이 이창호 9단을 꺾으며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제11회 대회에서도 창하오 9단이 이창호 9단을 꺾으며 중국의 2연패를 이뤄낸 것.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은 9월 3일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2억원(준우승 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제16회 양악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명맥을 끊은 치중수

白 김영수 5단 (호남 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로 단수 하게 되어서는 거의 중략에 다른 분위기다. 박광주 5단은 빠른 몰은 심정으로 171로 나가 최후의 일전을 외치고 있다. 박 5단의 희망은 하변 백 4점과 수상전에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전보에서 흑 ■로 깎아서 산 수가 천추의 한이 되어 흑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 수로 194에 쫓겨하여 살았더라면 지금쯤은 패배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백 △로 단수 하게 되어...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도'의 흑 1로 두어 패로 버티고 보아야 했다. 이 패는 좌변 백 대마를 잡자는 팻감이 많아 흑이 해볼만 하다. 이 패를 이긴다면 하변 백도 미생이어서 변수가 많았을 것이다. 박광주 5단은 순간적으로 189에 두면 산다고 왔으나 잔수에 밝은 백 전노장인 김영수 5단은 192로 치중하여 단번에 흑 대마의 명맥을 끊어버렸다.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내달 2일 창원서 ‘학초배 전국아마최강자전’

제34회 학초배(鶴 초배) 전국아마최강자전이 내달 2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 라메르빌딩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국 규모 아마추어 바둑대회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학초배는 올해부터 주니어부(만 35세 미만), 시니어부(만 35세 이상)를 분리하여 별도 진행한다. 주니어부 우승자에게는 아마 6단 인허와 함께 부상 200만원과 상대가 주어지며, 준우승자에게는 부상 100만원과 상대가 주어진다. 시니어부 우승자에게는 아마 5단 인허와 함께 부상 150만원과 상대, 준우승자에게는 부상 100만원과 상대가 주어진다. 학초배는 유원산업 회장이었던 학초 회장 재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창설된 기전이다. 문의 055-263-0675.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four real estate listings. The listings are for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업체', '안길부동산중개', and '(주)올건부동산 리서치'. The central listing for '안길부동산중개' features a large headline '대지매매 76명' and '매매가 160만(평당) 금매물'. Other listings provide details about property sales and services.